

2020년 6월 24일(수)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7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권나미 활동가 (02-6382-0999)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미디어 동물학대 방지 위해 '처벌 강화' 필수... 카라, 2,055명이 답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귀여운 동물 영상으로 '힐링', 하지만 동물을 '소품'처럼 여기는 악영향 우려
- 동물학대 영상 봤다 70%, 주로 유튜브를 통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 동물학대 영상을 본 74%는 신고하지 않았고, 29%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몰랐다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 2,055명이 참여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동물 출연 미디어에 대한 관심 ▲미디어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본 경험 ▲미디어 동물학대 범위 ▲미디어 동물학대 방지 방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예전에 비해 동물 관련 영상 콘텐츠가 많아졌다고 답했으며, 82%가 개와 고양이가 출연하는 반려동물 일상영상과 반려동물 훈련 정보 영상을 본다고 답했다. 동물 영상을 시청하는 이유로는 46%가 '귀여운 동물이 출연해서'라 답했으며, '반려동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25%를 차지했다.

○ 동물 영상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동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준다'는 답변이 61%, '귀엽고 즐거운 영상으로 사람의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답변이 56%였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동물이 소품처럼 이용되는 모습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답변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의 희귀성, 유행하는 품종 등이 노출되어서 생명을 구매하게 만든다'는 답변이 56%로 뒤를 이었다.

○ 설문 응답자의 70%가 동물학대 영상을 본적이 있다고 답했고, 유튜브 등의 개인 방송 채널(49%)과 소셜미디어(47%)에서 주로 접했으며, 인터넷 이용 중 우연히 보게 되거나(58%), '뉴스나 SNS에서 이슈가 되어 검색해서 찾아보았다'(49%)고 답변했다.

○ 영상 속 동물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물리적 폭력'이라 답한 응답자가 73%, '비정상적인 돌봄'은 66%,

'유기, 투견 등의 불법행위'(41%)와 '언어적·정신적 폭력'(36%)순으로 나타났다.

○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 있는 응답자 중 33%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공론화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85%)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 있는 응답자 중 26%만 동물학대 영상을 신고한 경험이 있었으며, '해당 사이트'(65%)에 신고하거나 '동물단체'(21%)에 신고했지만 신고 후 결과를 통지받거나 확인한 적은 대부분 '없다'(82%)고 답했다. 동물학대 영상을 보고 신고를 한 적이 없던 74%는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몰라서'(29%),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수위가 약할 것 같아서'(14%)를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 카라는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12개의 영상을 예시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80%가 '품종 고양이만 다루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동물학대라 지적했고 이는 품종 유행과 펫샵 구매를 부추기는 심각한 동물 학대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분홍색으로 염색한 개의 등장, 고양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한 공간에 여러 종의 동물이 함께 지내는 모습, 살아있는 닭을 치킨으로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뱀에게 살아있는 쥐를 먹이는 방송도 동물학대라고 답했다.

○ 응답자들은 동물이 미디어에 출연하기 전에 제작자가 가장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동물의 안전과 복지'(66%)와 '동물보호법 준수'(14%)를 꼽았으며, 미디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65%)와 '동물 학대 범위 확대(13%)', '공교육 내 동물권 교육 의무화(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본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동물과 인간이 안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일환이며, 국내 동물 영상들을 분석하는 모니터링단 활동과 영화 및 방송 관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미디어 속 동물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카라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미디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과 함께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 상단 배너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참고자료

1.	도표	영화, TV방송, 유튜브 등에서 동물이 출연하는 영상 얼마나 보는지에 대한 답변
2.	도표	동물 영상을 본다면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는지에 대한 답변
3.	도표	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답변
4.	도표	미디어에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
5.	도표	경험한 동물 영상은 어떤 학대 유형인지에 대한 답변
6.	도표	동물학대를 신고했다면 어디에 신고했는지에 대한 답변
7.	도표	동물학대 영상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8.	도표	아래 상황의 영상이 동물학대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의 답변
9.	도표	동물이 미디어에 출연하기 전에 제작자가 가장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
10.	도표	미디어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한 답변

도표1. 영화, TV방송, 유튜브 등에서 동물이 출연하는 영상 얼마나 보는지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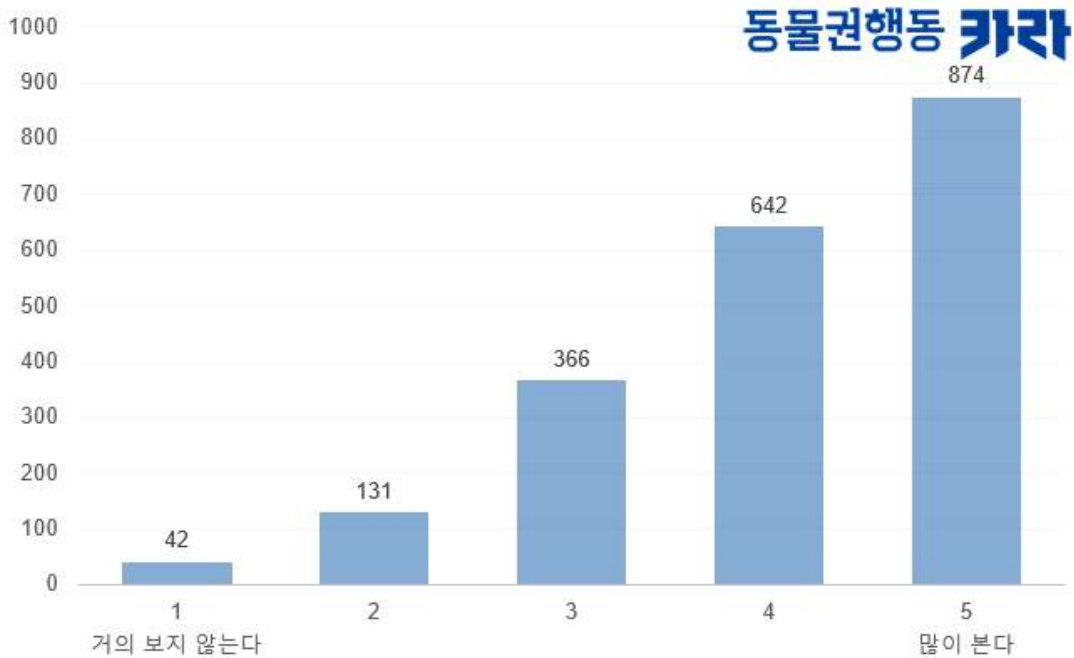


도표2. 동물 영상을 본다면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는지에 대한 답변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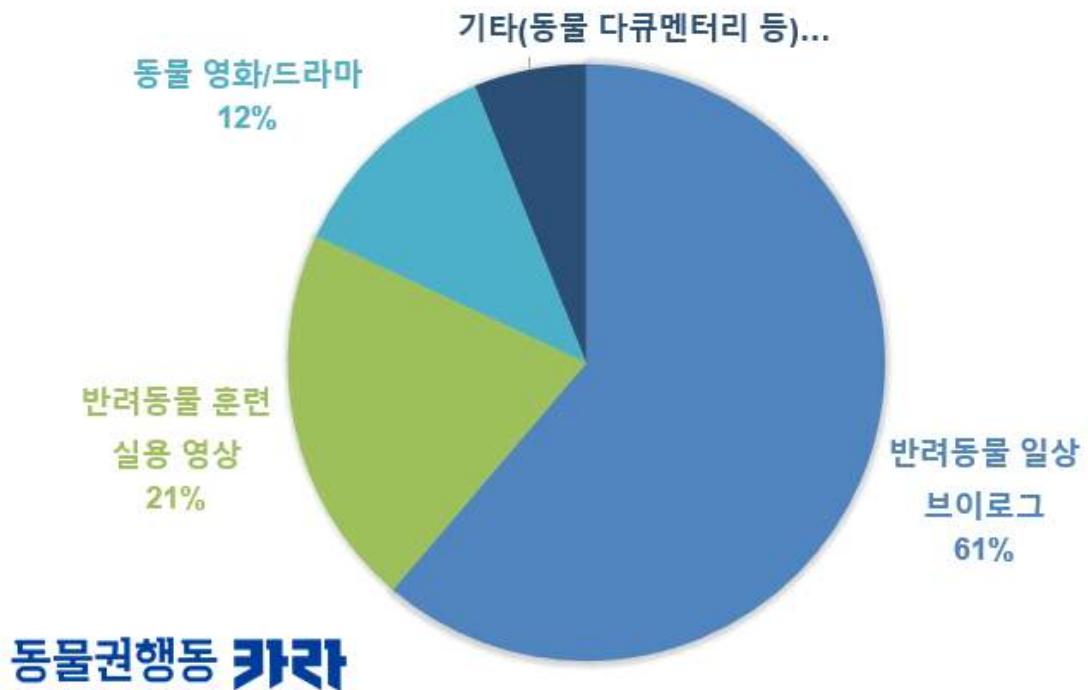


도표3. 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답변

동물 영상, 왜 보나요?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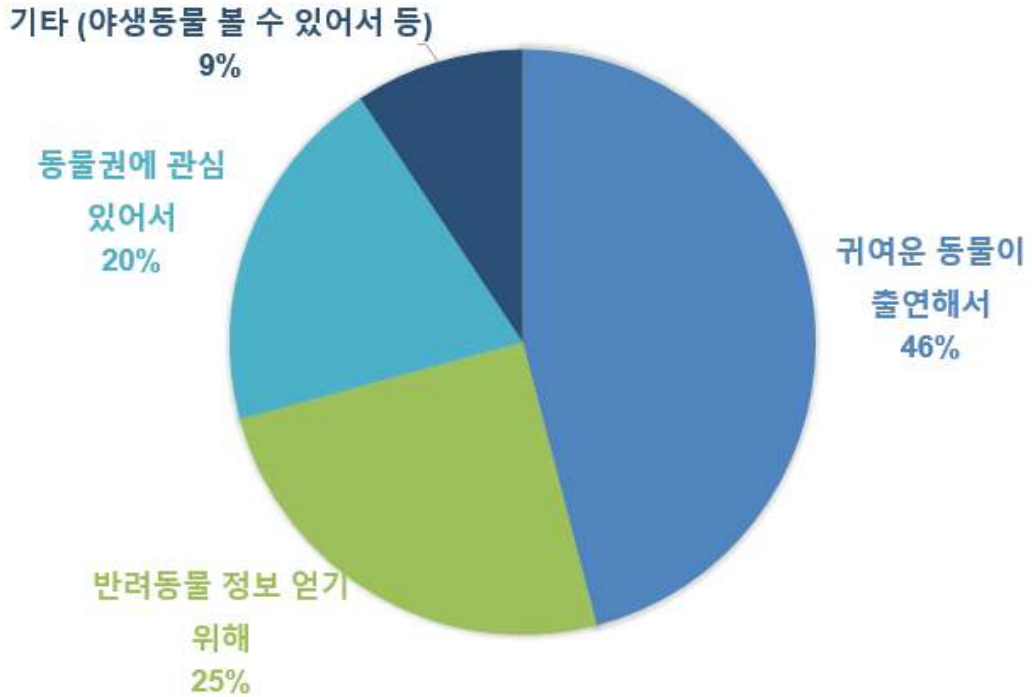


도표4. 미디어에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

동물 영상이 끼치는 '긍정적' 영향

동물에 관한 유익한 정보 습득 61%

귀엽고 즐거운 영상으로
스트레스 감소 56%

생명감수성
향상 31%

미디어 내용 쉽게
이해 도움 21%

기타 1%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영상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

소품처럼 이용 생명 가볍게 여김 72%

유행하는 품종으로 노출되어 생명을
구매하게 함 56%

안전하지 않은
상황 노출 46%

잘못된 정보
제공 33%

기타 1%

동물권행동 카라

도표5. 경험한 동물 영상은 어떤 학대 유형인지에 대한 답변

동물 학대 영상의 유형은?

동물권행동 카라



도표6. 동물학대를 신고했다면 어디에 신고했는지에 대한 답변

신고했다면 어디에 신고했나?

동물권행동 카라



도표7. 동물학대 영상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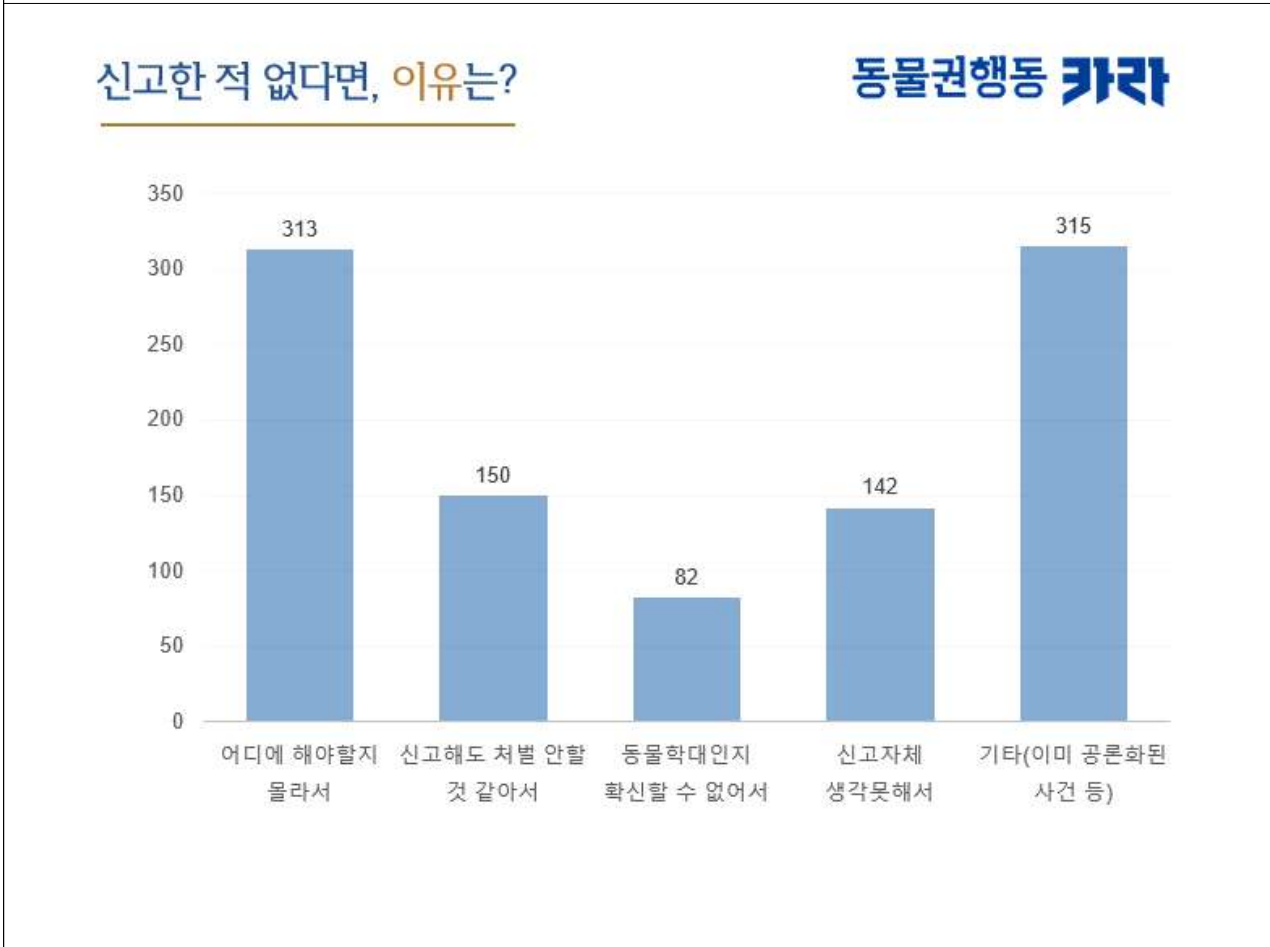


도표8. 아래 상황의 영상이 동물학대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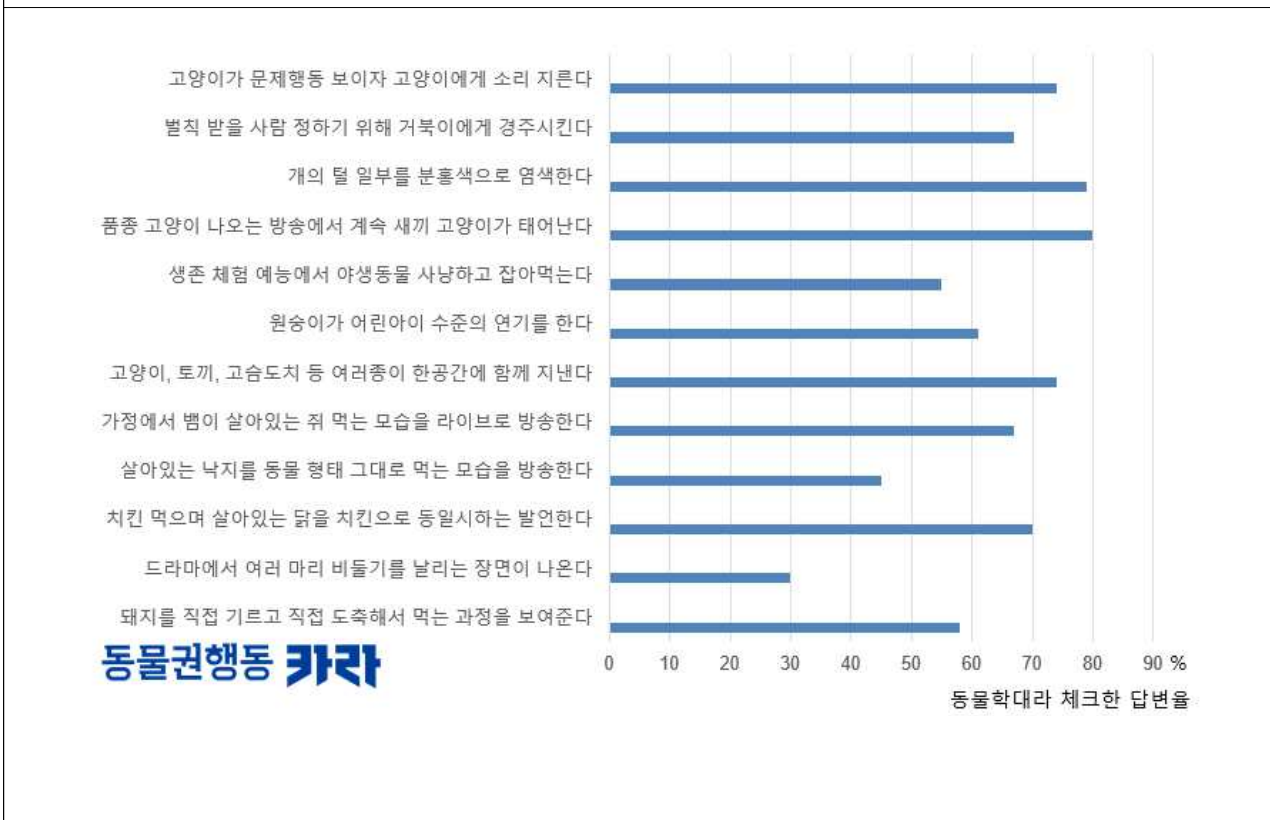


도표9. 동물이 미디어에 출연하기 전에 제작자가 가장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미디어 제작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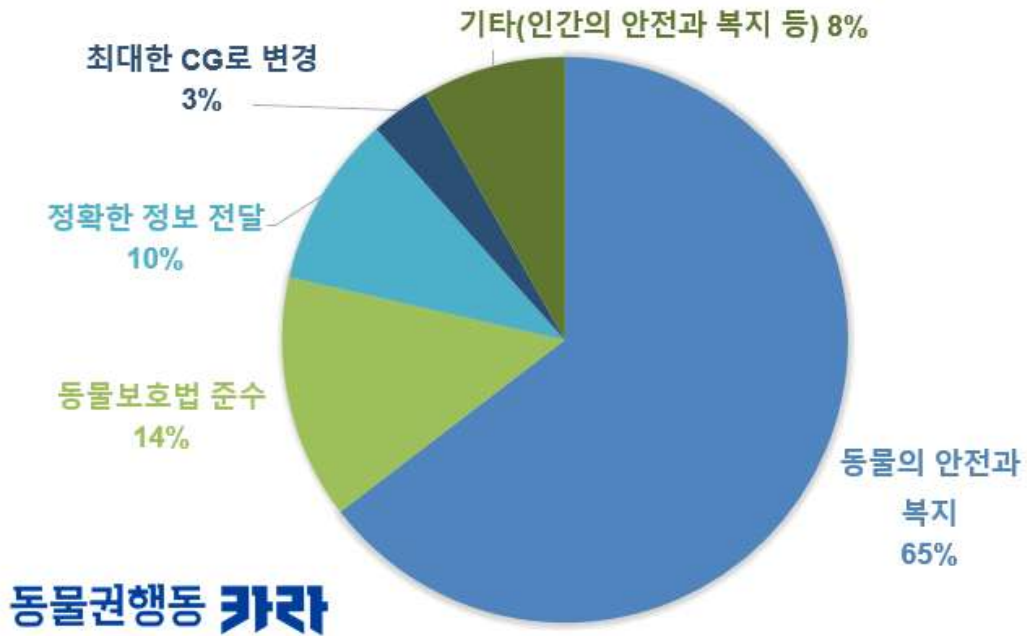


도표10. 미디어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한 답변

미디어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